

---

부산·울산과 수도권의  
경제 양극화 현상 조사 보고서

---

2023. 6. 30.

**KBIZ** 중소기업중앙회

# 차 례

제1장 조사 개요 .....	1
제2장 조사 결과 분석 .....	1
1. 지역 내 총생산(GRDP) 및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.....	1
2.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및 핵심노동연령대(30~64세) 인구 비중 .....	4
3. 상용근로자 비중 및 월평균 임금 수준 .....	6
4. 기업체 연구개발비 및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 .....	8
5. 고성장 및 가젤 기업, 창업기업 .....	10

## I 조사 개요

### 1 조사 배경

- 부산, 울산과 수도권의 경제 양극화 정도를 항목별 경제지표 비교·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향후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

### 2 조사 개요

■ 조사 방법	각종 통계자료 비교·분석
■ 조사 기관	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

### 3 조사 내용

항 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내총생산(GRDP) / 1인당 지역내총생산(GRDP)</li> <li>■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및 핵심 노동 연령 인구의 비중</li> <li>■ 지역별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과 월평균 임금수준</li> <li>■ 지역별 기업체 연구개발비와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R&amp;D 인력 현황</li> <li>■ 전국 고성장 및 가젤 기업, 창업기업 수</li> </ul>
-----	--

## II 조사 결과

### 1 지역내총생산(GRDP)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

- 2021년 기준 부산 전체 GRDP는 10년 전 대비 44.1% 증가한 98조 6,520억 원으로,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음
  - 울산의 전체 GRDP는 77조 6,830억 원으로, 6대 광역시 중 3번째로 높았지만, 10년 전 대비 증가율(13.1%)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음
  - 그러나, 부산, 울산 모두 10년 전 대비 GRDP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낮아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커졌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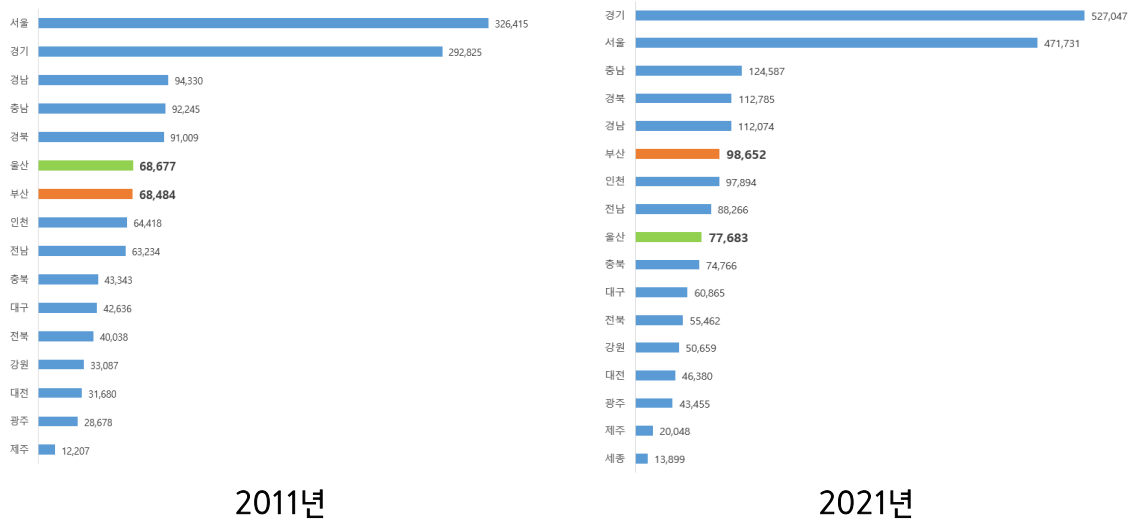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전국 지역내총생산(2011년, 2021년)

(단위: 십억 원 %)

구분	지역내총생산(명목)			구분	지역내총생산(명목)		
	2011년	2021년	증감율		2011년	2021년	증감율
서울	326,415	471,731	+44.5%	강원	33,087	50,659	+53.1%
부산	<b>68,484</b>	<b>98,652</b>	<b>+44.1%</b>	충북	43,343	74,766	+72.5%
대구	42,636	60,865	+42.8%	충남	92,245	124,587	+35.1%
인천	64,418	97,894	+52.0%	전북	40,038	55,462	+38.5%
광주	28,678	43,455	+51.5%	전남	63,234	88,266	+39.6%
대전	31,680	46,380	+46.4%	경북	91,009	112,785	+23.9%
울산	<b>68,677</b>	<b>77,683</b>	<b>+13.1%</b>	경남	94,330	112,074	+18.8%
세종	-	13,899	-	제주	12,207	20,048	+64.2%
경기	292,825	527,047	+80.0%				

〈그림 1〉 전국 지역내총생산(2011년, 2021년)

(단위: 십억 원)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지역소득」

- 2021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(GRDP)은 2,965만 원으로 10년 전 대비 전국에서 7번째, 6대 광역시 중에서는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
  - 하지만 수도권과 최대 1.6배,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과는 2배 이상 차이 나며, 부산이 전국 최하위 권을 벗어나지 못함
  - 울산의 1인당 GRDP는 6,91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긴 하나, 10년 전 대비 증가율은 11.9%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음

〈표 2〉 지역별 1인당 GRDP(2011년, 202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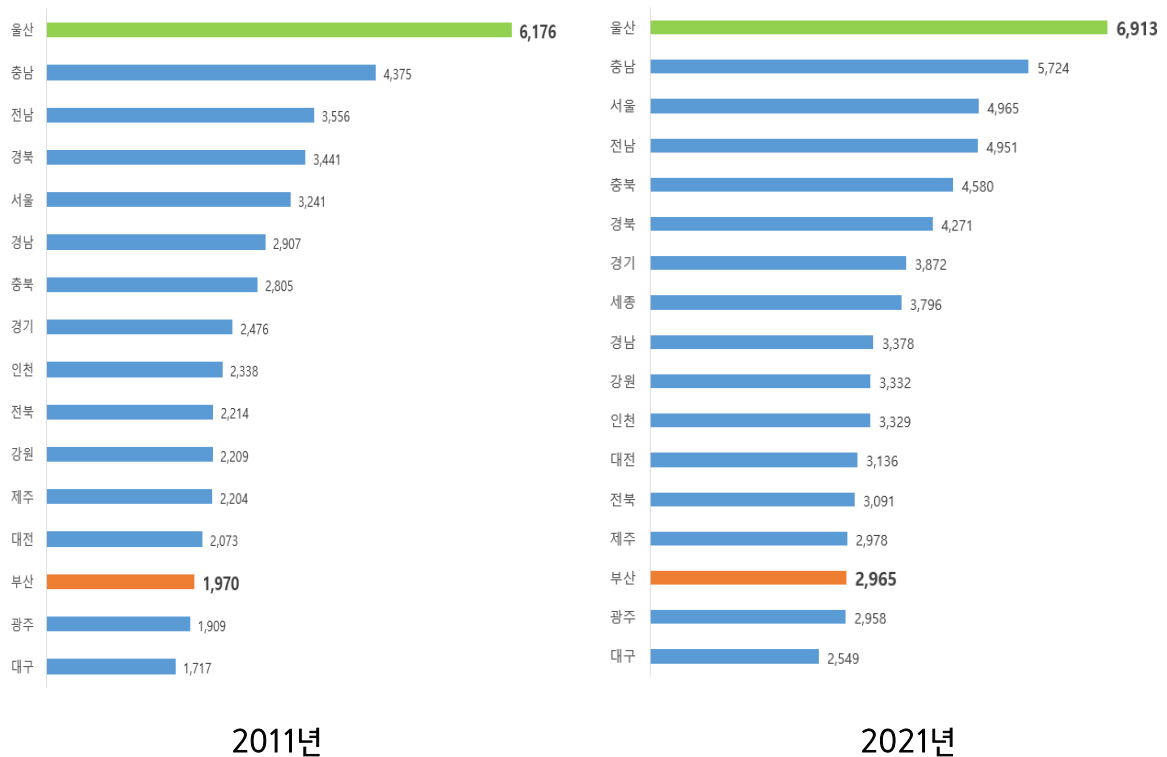
(단위: 만 원)

구분	1인당 GRDP			구분	1인당 GRDP		
	2011년	2021년	증가율		2011년	2021년	증가율
서울	3,241	4,965	+53.2%	강원	2,209	3,332	+50.8%
부산	1,970	2,965	+50.5%	충북	2,805	4,580	+63.3%
대구	1,717	2,549	+48.5%	충남	4,375	5,724	+30.8%
인천	2,338	3,329	+42.4%	전북	2,214	3,091	+39.6%
광주	1,909	2,958	+55.0%	전남	3,556	4,951	+39.2%
대전	2,073	3,136	+51.3%	경북	3,441	4,271	+24.1%
울산	6,176	6,913	+11.9%	경남	2,907	3,378	+16.2%
세종	-	3,796	-	제주	2,204	2,978	+35.1%
경기	2,476	3,872	+56.4%				

※ 출처 : 통계청, 「지역소득」

〈그림 2〉 지역별 1인당 GRDP(2011년, 2021년)

(단위: 만 원)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지역소득」

## 2]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인구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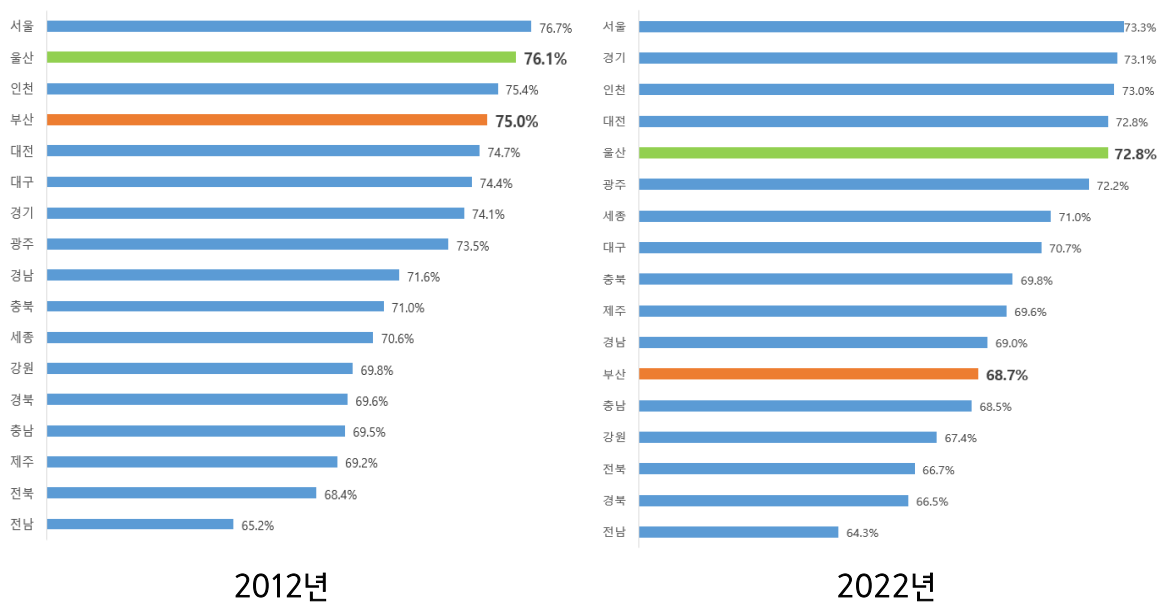
- 2022년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.7%로, 10년 전 대비 감소폭(-6.3%p)이 전국에서 가장 컸음
- 울산의 2022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6.1%로 10년 전보다 3.3%p 감소했으나, 전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(71.0%)보다 높은 수준이었음

〈표 3〉 전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(2012~2022년)

(단위: %, %p)

구분	생산가능인구 비중			구분	생산가능인구 비중		
	2012년(A)	2022년(B)	증감(B-A)		2012년(A)	2022년(B)	증감(B-A)
서울	76.7	73.3	-3.4	강원	69.8	67.4	-2.4
부산	75.0	68.7	-6.3	충북	71.0	69.8	-1.2
대구	74.4	70.7	-3.7	충남	69.5	68.5	-1.0
인천	75.4	73.0	-2.4	전북	68.4	66.7	-1.7
광주	73.5	72.2	-1.3	전남	65.2	64.3	-0.9
대전	74.7	72.8	-1.9	경북	69.6	66.5	-3.1
울산	76.1	72.8	-3.3	경남	71.6	69.0	-2.6
세종	70.6	71.0	+0.4	제주	69.2	69.6	+0.4
경기	74.1	73.1	-1.0				

〈그림 3〉 전국 생산가능인구 비중(2012년, 2022년)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재편·가공

2-1 핵심노동연령대(30~64세) 인구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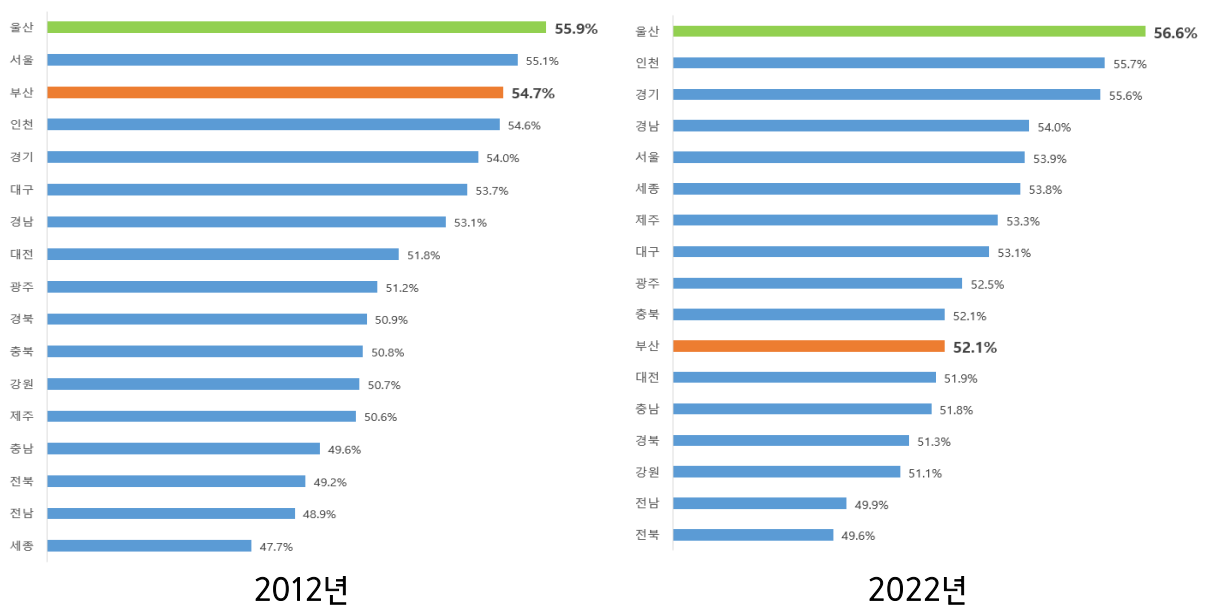
- 2022년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핵심노동연령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2.1%로, 수도권보다 최대 3.6%p 낮았고, 비중이 가장 높은 울산보다 4.5%p 낮았음
- 울산의 2022년 핵심노동연령대 인구 비중은 56.6%로 10년 전보다 큰 증가는 없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음

<표 4> 전국 핵심 노동 연령대 인구 비중 변화(2012~2022년)

(단위: %, %p)

구분	핵심노동연령대 인구 비중			구분	핵심노동연령대 인구 비중		
	2012년(A)	2022년(B)	증감(B-A)		2012년(A)	2022년(B)	증감(B-A)
서울	55.1	53.9	-1.2	강원	50.7	51.1	+0.4
부산	54.7	52.1	-2.6	충북	50.8	52.1	+1.3
대구	53.7	53.1	-0.6	충남	49.6	51.8	+2.2
인천	54.6	55.7	+1.1	전북	49.2	49.6	+0.4
광주	51.2	52.5	+1.3	전남	48.9	49.9	+1.0
대전	51.8	51.9	+0.1	경북	50.9	51.3	+0.4
울산	55.9	56.6	+0.7	경남	53.1	54.0	+0.9
세종	47.7	53.8	+6.1	제주	50.6	53.3	+2.7
경기	54.0	55.6	+1.6				

<그림 4> 전국 핵심노동연령대 인구 비중(2012년, 2022년)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재편·가공

### ③ 상용근로자 비중 및 월평균 임금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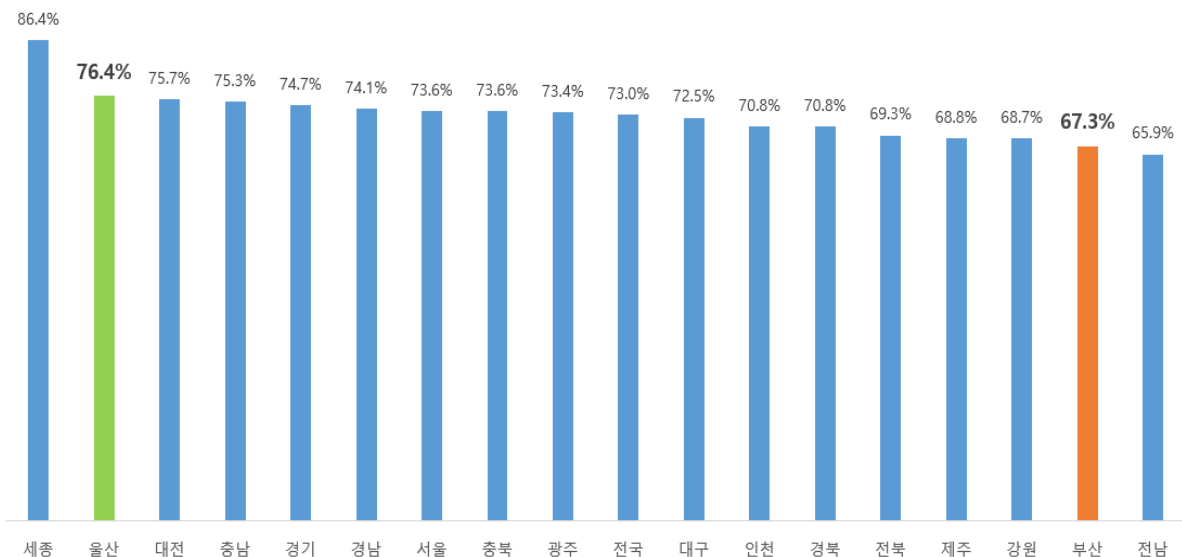
-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이 67.3%로, 10년 전 대비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
  - 지난 10년간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,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낮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
  - 2012년 대비 2022년에 울산의 상용직 비중 증가율(10.6%)은 가장 낮았으나, 2022년 상용직 비중이(76.4%)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음

〈표 5〉 전국 상용근로자 비중 변화(2012~2022년)

(단위: %)

구분	상용근로자 비중			구분	상용근로자 비중		
	2012년	2022년	증가율		2012년	2022년	증가율
서울	60.8	73.6	+21.1%	강원	64.1	68.7	+7.2%
부산	56.7	67.3	+18.7%	충북	65.1	73.6	+13.1%
대구	59.0	72.5	+22.9%	충남	67.9	75.3	+10.9%
인천	59.6	70.8	+18.8%	전북	60.4	69.3	+14.7%
광주	62.0	73.4	+18.4%	전남	56.4	65.9	+16.8%
대전	65.5	75.7	+15.6%	경북	63.3	70.8	+11.8%
울산	69.1	76.4	+10.6%	경남	69.4	74.1	+6.8%
세종	-	86.4	-	제주	50.8	68.8	+35.4%
경기	65.5	74.7	+14.0%				

〈그림 5〉 지역별 상용근로자 비중(2022년)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



- 2022년 부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364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34.3% 증가하여,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증가했음
- 지난 10년간 임금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, 서울(455만 원)보다 1.2배 낮았음
- 2022년 울산의 월평균 임금은 약 453만 원으로 10년 전 대비 증가율은 낮았으나,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 임금수준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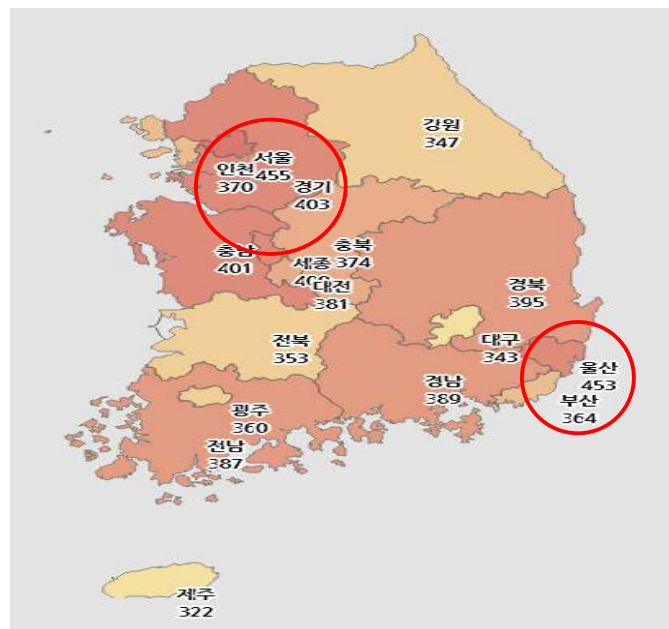
<표 6> 전국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액 변화(2012~2022년)

(단위: 만 원)

구분	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			구분	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		
	2012년	2022년	증가율		2012년	2022년	증가율
서울	349	455	+30.4%	강원	270	347	+28.5%
부산	271	364	+34.3%	충북	278	374	+34.5%
대구	253	343	+35.6%	충남	314	401	+27.7%
인천	283	370	+30.7%	전북	290	353	+21.7%
광주	270	360	+33.3%	전남	331	387	+16.9%
대전	311	381	+22.5%	경북	305	395	+29.5%
울산	403	453	+12.4%	경남	297	389	+31.0%
세종	-	398	-	제주	246	322	+30.9%
경기	307	403	+31.3%				

<그림 6> 지역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(2022년)

(단위: 만 원)



※ 출처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

4] 기업체 연구개발비 및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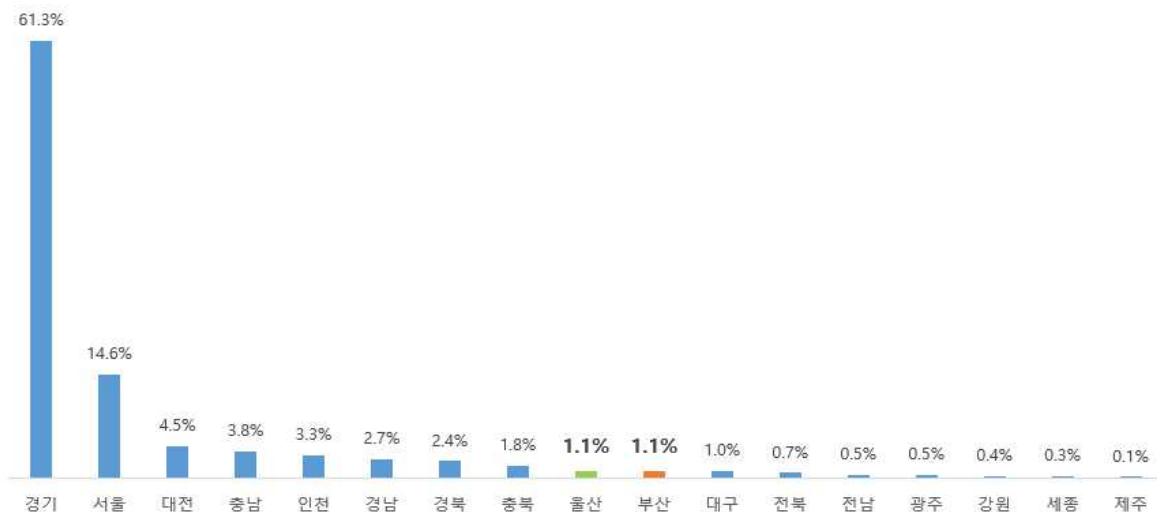
- 2021년 부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,56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80.6% 증가하여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4번째로 많이 증가했으나,
  - 연구개발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,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부산, 울산이 약 57배 차이를 보이는 등 비수도권과의 R&D 역량 차이가 큰 상황임

<표 7> 지역별 기업체 연구개발비 변화(2011~2021년)

(단위: 십억 원)

구분	연구개발비			구분	연구개발비		
	2011년	2021년	증가율		2011년	2021년	증가율
서울	6,109	11,774	+92.7%	강원	126	292	+131.7%
부산	474	856	+80.6%	충북	646	1,459	+125.9%
대구	422	795	+88.4%	충남	2,524	3,078	+21.9%
인천	1,698	2,634	+55.1%	전북	372	589	+58.3%
광주	413	412	-0.2%	전남	373	417	+11.8%
대전	2,153	3,614	+67.9%	경북	1,565	1,970	+25.9%
울산	664	862	+29.8%	경남	1,217	2,181	+79.2%
세종	-	253	-	제주	68	65	-4.4%
경기	19,358	49,559	+156.0%				

<그림 7> 지역별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(2021년)



※ 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연구개발활동조사」

- 2021년 부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&D 인력은 6.9명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았고 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 4배 이상 차이 있음
  - 울산의 연구 인력은 9.5명으로 부산보다 소폭 많지만, 전국 평균 연구 인력(11.8명)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
  -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역시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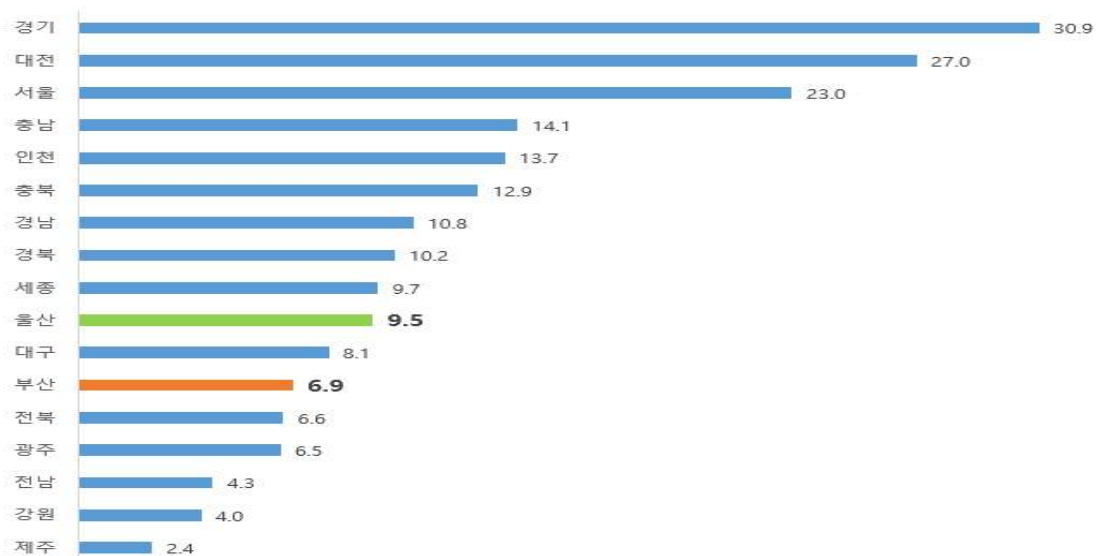
〈표 8〉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&D 인력 변화(2011~2021년)

(단위: 명)

구분	기업체 R&D 인력			구분	기업체 R&D 인력		
	2011년	2021년	증가율		2011년	2021년	증가율
서울	12.2	23.0	+88.1%	강원	2.5	4.0	+55.7%
부산	3.7	6.9	+85.9%	충북	8.6	12.9	+48.9%
대구	4.8	8.1	+68.1%	충남	14.4	14.1	-1.9%
인천	9.3	13.7	+48.0%	전북	4.4	6.6	+50.3%
광주	4.9	6.5	+32.6%	전남	2.9	4.3	+50.8%
대전	19.8	27.0	+36.5%	경북	7.9	10.2	+28.3%
울산	10.4	9.5	-8.8%	경남	8.2	10.8	+32.3%
세종	-	9.7	-	제주	1.6	2.4	+49.0%
경기	22.0	30.9	+40.6%				

〈그림 8〉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기업체 R&D인력(2021년)

(단위: 명)



※ 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연구개발활동조사」

## 5 고성장 및 가젤 기업과 창업기업

- 2021년 기준 부산의 고성장 및 가젤 기업, 창업기업 수는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았음
  - 그러나 서울, 경기지역에 절반 이상 집중되어 있어 전체 고성장 및 가젤 기업, 창업기업 중 부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음
  - 울산의 고성장 및 가젤 기업, 창업기업 수는 모두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음

〈표 9〉 지역별 고성장 기업 수(2021년)

(단위: 개, %)

구분	고성장 기업	비중	구분	고성장 기업	비중
전국	36,524	100.0	경기	9,962	27.3
서울	10,427	28.5	강원	756	2.1
<b>부산</b>	<b>1,818</b>	<b>5.0</b>	충북	1,216	3.3
대구	1,055	2.9	충남	1,454	4.0
인천	1,699	4.7	전북	893	2.4
광주	737	2.0	전남	1,187	3.2
대전	946	2.6	경북	1,526	4.2
<b>울산</b>	<b>565</b>	<b>1.5</b>	경남	1,780	4.9
세종	153	0.4	제주	350	1.0

〈표 10〉 지역별 가젤 기업 수(2021년)

(단위: 개, %)

구분	가젤 기업	비중	구분	가젤 기업	비중
전국	7,680	100.0	경기	2,267	29.5
서울	2,354	30.7	강원	130	1.7
<b>부산</b>	<b>350</b>	<b>4.6</b>	충북	263	3.4
대구	235	3.1	충남	294	3.8
인천	375	4.9	전북	153	2.0
광주	145	1.9	전남	161	2.1
대전	174	2.3	경북	249	3.2
<b>울산</b>	<b>104</b>	<b>1.4</b>	경남	296	3.9
세종	51	0.7	제주	79	1.0

※ 출처 : 통계청, 「기업생멸행정통계」

〈표 11〉 지역별 창업기업 수(2022년)

(단위: 개, %)

구분	창업기업	비중	구분	창업기업	비중
전국	1,317,479	100.0	경기	399,091	30.3
서울	249,175	18.9	강원	38,614	2.9
<b>부산</b>	<b>74,768</b>	<b>5.7</b>	충북	38,234	2.9
대구	49,701	3.8	충남	57,643	4.4
인천	84,878	6.4	전북	41,223	3.1
광주	33,267	2.5	전남	40,012	3.0
대전	33,699	2.6	경북	56,296	4.3
<b>울산</b>	<b>22,663</b>	<b>1.7</b>	경남	69,926	5.3
세종	8,915	0.7	제주	19,374	1.5

※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, 「창업기업동향」